

# “경허, 막행막식 후회 삼수갑산 은둔”

윤창화 민족사 대표, 경허 입적 100주년 맞아 <불교평론> ‘경허의 주색...’ 기고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는 문을 발표한 윤창화 대표

“만공, 한암도 법은 따르되 행은 따르지 말것 강조  
바르지 못한 계행  
후대 지계 정신 훼손  
경허 평가 냉정해야”



맥이 끊기다시피한 선종을 다시 진작시킨 경허선사의 영정. 스님은 자신의 파계적 삶에 대해 ‘다생의 습기이며 본능’이었음을 고백했다.

“경허 선사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됨을 알았으며 그로인한 비난으로 삼수갑산에 은둔했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경허 선사의 입적 100년을 맞는 새로운 평가가 눈길을 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8월 30일 발간 예정인 <불교평론> 가을호의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논문에서 경허 선사가 자기 자신의 삶을 변명하거나 후회한 내용들을 최초로 소개했다.  
이 논문에서는 경허 선사 스스로 자신의 삶에 내린 평가가 실려 있다.  
윤창화 대표는 ‘경허와 화엄사 강백 진응(震應) 스님과 대화’를 예로 들며 경

허 선사가 주색과 같은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다고 밝혔다.  
대화에서 진응 스님은 “낮이면 술, 밤이면 여자를 부르라하는데 해인사 인파(印波)화상은 일평생에 색(色)을 멀리하며 설한풍에도 마루에서 가르쳤다하는데 어찌 화상은 그만한 것도 제어못하니 후생의 사범(師範)이 되기를 기약하겠습니까?”라고 물었으며 이에 경허 선사는 부끄러움을 토해내고 전한다. 경허 선사는 “頓悟離阿佛, 多生習氣深, 風靜波尚湧, 理顯念猶微(돈오는 비록 부처와 동일하지만 다생의 습기는 깊어서, 바람은 고요해도 파도는 용솟음치고, 이치는 분명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침노한다)’는 선언의 글을 들려 당신이 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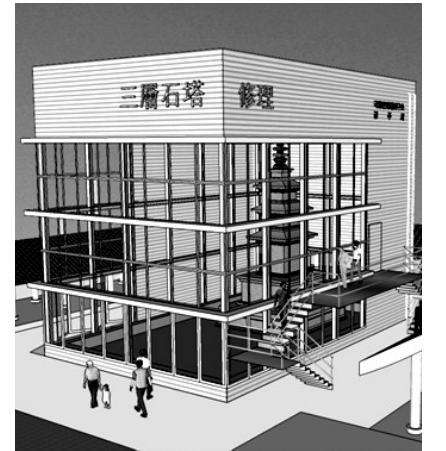
한 광주 정계사 풍도가 그려해 습기로 어쩔 수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윤창화 대표는 경허 선사가 자신의 주색에 대해 “대승은 작은 예절에 구애 받지 않고 식색은 인간 본능이다”고 말한 부분을 들며 이러한 경허 선사의 입장이 후대에 지계정신에 대한 중요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삼수갑산행은 비난에 대한 도피  
윤창화 대표는 이러한 경허 선사의 행위로 인해 당시 불교계에서도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경허 선사는 말년에 결국 자신의 행위가 불교계 폐해를 끼침을 인식했

다”며 경허 선사가 (취은화상행장)에서 ‘부처님 교화에도 폐단을 끼쳐 백가지 잘못을 함께 일으켜서 도덕(道德)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데, 문장으로 또 어떻게 구제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문목(文墨)을 놓은지 수년이 됐다’고 말한 부분을 예시로 들었다.  
윤 대표는 “경허 선사의 삼수갑산행은 당시 승단과 세인들로부터 ‘악마(惡魔)’, ‘마중(魔種)’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인한 것으로 결국 은둔을 선택했다”며 경허 선사의 삼수갑산행이 도피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후학들은 반면교사 삼아야  
윤 대표는 “이를 보아온 만공, 한암과 같은 제자들은 경허 선사에게 ‘선(善)은 부처, 악은 호랑이보다 더했다(善惡過虎佛)’, ‘법을 따르는 것은 좋으나 행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후학들에게 일렀다”며 “제자들이 그의 삶을 보고 오히려 철저하게 계를 지키 결국 스승인 경허 선사를 높게 평가받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끝으로 “경허 선사가 전통선을 다시 살린 ‘공’이 높지만 막행막식으로 계율 의식을 무너뜨리고 후대 수행자들로 하여금 주색을 답습하게 한 것은 일대 과오”라며 “현대 수행자들은 그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고 지계정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석가탑 해체·보수 전과정 투명창 공개

국립문화재연구소, 석가탑 철골덧집 시공해 일반인 관람 가능

9월 최초로 진행되는 불국사 석가탑의 해체보수 과정을 일반인들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주시는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의 해체보수를 위해 9월 중 탑 주변에 가설구조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 제21호인 석가탑은 1966년 도굴미수사건으로 훼손돼 부분적으로 보수작업을 벌인 바 있으나, 전체적인 해체보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석가탑은 2010년 12월 정기 안전점검 시 북동쪽 상층기단 감석에서 균열이 확인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경주시와 협정을 체결하고 해체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수작업은 2014년 끝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은 석탑의 해체 조사와 보수에 활용될 철골덧집, 회랑 주변의 부재 보존처리 공간 등 높이 12m 규모이며, 내부에 석탑 부재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할 크레인을 설치한다.  
특히 전체의 절반을 투명창으로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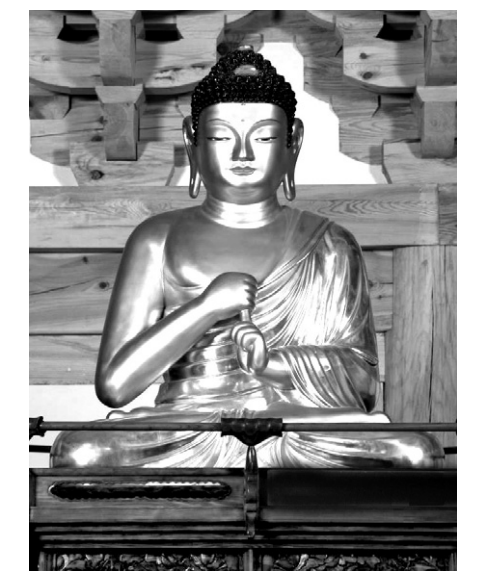
투명창으로 된 석가탑 철골덧집 조감도

하고 관람 데크와 해체보수 내용을 설명한 패널을 설치해 일반 관람객도 석탑 해체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체보수 작업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불국사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석가탑 해체 보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해인사 불교문화재 대거 보물 지정

문화재청, 8월 23일 법보전·대적광전 불상·복장전적 등 4건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불상 등 해인사 성보가 대거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8월 23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일신라 말~고려 초에 제작된 1미터가 넘는 불상으로 동글동글한 나발(螺髮), 이상화된 얼굴, 당당한 신체 표현,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말아 쥐는 비로자나불수인 형태 등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양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장유물로는 다라니, 발원문, 사리를 비롯한 각종 상징적 의식물을 넣은 통인후령통(喉鈴筒) 등 여러 종류의 유물이 발견됐다.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復藏典籍)’은 법보전 불상의 복장 내에서 발견된 <반야심경>과 <화엄경> 진본(晉本) 권16~20이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대적광전 목조불좌상과 그 안에 있던 복장유물이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은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12~13세기에 제작된 8건 37점의 중요 전적(典籍)들이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4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보물 제1772호), ‘대구 동화사 지장시왕도’ (보물 제1773호), ‘진실주집’ (보물 제1775호), ‘영가진각대사증도기’ (보물 제1776호), ‘장승법수’ (보물 제703-2호) 등 5건의 불교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국사 영문 표기 ‘Bulguksa Temple’ 로

문화재 영문 기준안 9월 16일까지 공표 · 10월 중 최종 확정 예정

불국사는 영문으로 ‘불국사 템플’ (Bulguksa Temple)이라 해야 할까? ‘불국 템플’ (Bulguk Temple)이라 해야 할까?  
문화재청이 문화재 명칭에 대해 영문표기 기준안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제각각이던 불교문화재의 영문표기 또한 정리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8월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안 공청회”를 열고 기준안을 공표했다.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는 문화재청 의뢰로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박희선 ㈜펜트렌스 넷 책임연구원 주재발표를 하고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좌장 아래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광중철 한국통번역사협회 회장, 피터 바도로우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협회회장,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김지명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 원장,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 정희원 국립국

어원 어문연구팀 팀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피터 바도로우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협회회장은 “문화재 영문명을 이용할 주사용자는 외국인”이라며 “이들이 최대한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문화재 영문명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명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장도 “문화재 영문명의 국제적 소통이 중요한 만큼 해외문화재를 환수하거나 유실 문화재를 추적할 때 소통하기 위해 유네스코 등이 정한 문화재 명칭 국제 표준에도 부합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화재청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로마자 표기와 분류어의 의미 표기를 함께 사용하기로 기준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그 자체가 고유명사인 불국사는 ‘불국사 템플’ (Bulguksa Temple)로 표기되며 북한산은 ‘북한산 마운틴’

(Bukhansan Mountain)으로 표기된다.  
이날 공표된 기준안은 국어 표준 발음법에 따라 해당음을 영문화한 로마자 표기와 단어 뜻을 풀어 영문화한 두가지 방법이 적용된 것이다.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의 경우에는 의미역 표기가 진행된다.  
불교문화재 중 고유명사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산스크리트어 번역을 기반으로 가용하되 보편성이 떨어질 경우 의미역 번역어를 사용한다.  
예로 금동보살입상은 기존에는 ‘Geumdongbosaripsang’으로 번역됐지만 바뀐 표기법에 따르면 ‘Standing Gilt-bronze Bodhisattva’가 적용된다.  
또한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은 ‘Gamjeunnidaebanggwangbulhwaemyeong’에서 ‘Avatamsaka Sutra(the Flower Adornment Sutra) in Silver on Indigo Paper’으로 번역된다.  
문화재청은 9월 16일까지 문화재청 누리집 등에 이번 공표안을 공고할 예정이

■대표적인 불교문화재 영문 표기

- 부처 Buddha
- 관음보살 Avalokitesvara Bodhisattva
- 대웅전 Daeungjeon Hall
- 조사전 Josajeon Hall
- 탑 pagoda
- 석등 Stone Lantern
- 계단 Ordination Platform
- 초초본 The First Goryeo Edition
- 사천왕 Four Guardian Kings
- 조계사 Jogyesa Temple
- 봉정암 Bongjeongam Hermitage

다.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최종안이 확정되면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련 사이트, 전국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옥배 한국불교영어번역연구원장은 “우리 문화재를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한국문화 알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속 불교용어

아하, 이것도 불교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에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민중법사 강술/이동형 편저/신국판/354쪽/15,000원

천태교학에서 바라본 반야심경

고도의 불교학이자 실천체계를 겸한 천태교관에 입각하여 『반야심경』을 진공실상과 지관수행이라는 이론과 실천의 두 줄기로 정리한 명저!

반야심경 강의

민중법사 강술/이동형 편저/신국판/354쪽/15,000원

선과 뇌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

아리타 히데호 · 겐유 소규 저/이성동 옮김/국판/252쪽/13,800원